

신록의 창포 향기 가슴 설레는 단오(端午)

강 욱
자유기고가

단오(端午)는 전통 명절로서 오랜 옛날부터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음력 5월 5일로 단오의 ‘단(端)’자는 ‘처음’ 곧 첫번째를 뜻하고 ‘오(午)’자는 ‘오(五)’, 곧 다섯을 뜻하므로 ‘초닷새(初五日)’라는 뜻이 된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최대의 명절로 삼았다. 더운 여름을 맞이 전의 초하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祈豊祭)이기도 했다.

쑤이 푸르른 가장 좋은 계절에 있는 단오는 일명 수릿날(戌衣日),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유래는 중국 초나라 회왕때부터로 전해 온다.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먹라수에 투신해 자살하였는데 그 날이 5월 5일 이

었다. 그 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단오가 되었다고 한다.

단오를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신(神)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된다. ‘열양세시기’에는 이날 밥을 수뢰(水瀨:물의 여울)에 던져 굴원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草)라는 나물과 쑥을 뜯어 떡을 해서 먹었는데 떡의 둥그런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서 수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菖蒲)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갯가나 우물가에 피어난 창포를 뜯어다가 장독간에서 하루 밤을 재우며 밤이슬을 맞힌다. 다음 날 가마솥에 물을 길어다 잎사귀를 떼어낸 창포의 줄거리를 푹 끓였다. 창포를 끓인 물은 약간 거무스름한 빛을 띄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며 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창포가 무성한 못가나 물가에 가서 ‘물맛이 놀이’를 하는 풍속도 있었다.

창포가 만발하는 단오 날에 남자들은 창포뿌리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였으며 창포떡, 창포김치도 해 먹었다고 전한다. 또한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이날 하루 부녀자들은 머리에 꽂고 다녔다. 비녀에는 수(壽), 복(福)자를 새기기도 하고 연지로 붉게 칠하기도 한다. 붉은 색은 양색(陽色)으로 귀신을 쫓는 기능을 가진데서 생긴 풍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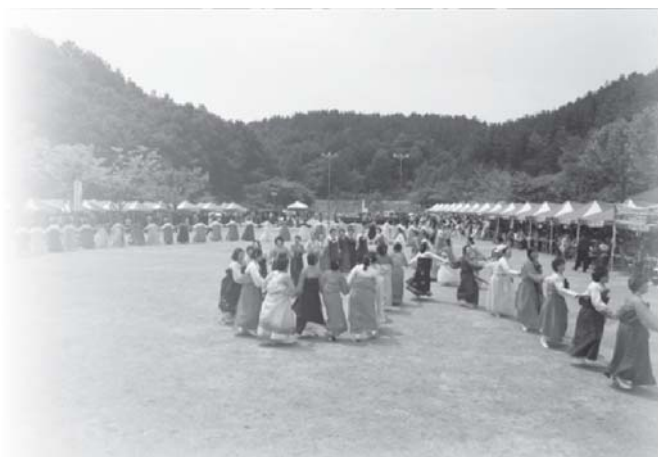
그밖에도 창포와 관련된 민속이야기는 많이 전해오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창포즙을 장기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건망증이 사라지며 불로 장수한다고 했다. 창포 꽃을 따서 말린 것을 요 밑에 깔고 자면 모기, 빈대, 벼룩 따위의 물 것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마나 액귀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창포줄기로 엮은 방석도 그와 같은 벽사(邪:귀신을 물리치는 것)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단오에는 예부터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도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시골에서 생색내는 것은 여름 부채, 겨울 책력이라고 했다. 부채 중에서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흰 살로 이루어진 것을 백첩(白貼)이라 하고, 살에 옷칠한 것을 칠첩(漆貼)이라 하는데 40~50살의 큰 부채이

다. 부채의 종류는 승두선, 어두선, 합죽선, 반죽선, 외각선, 내각선 등이 있다.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수리취는 모양이 보통의 취나물과 같이 둥글다. 땀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수리취떡, 쑥떡이라고 한다. 앵두는 여러 과일 중에 가장 먼저 익으며 단오절이 제철이어서 궁중에 진상하고 종묘와 사당에 천신하며 편과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채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낸다. 단옷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음료이다.

신록의 민속축제 단오는 누구보다 처녀총각에게 가슴 설레는 날 이었다. 조선시대 유교관습으로 인한 남녀칠세부동석의 내외(内外)의 예(禮)가 이날만큼은 완화되었다.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않아도



얼굴을 흘끗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이날은 있었다. 아침이면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여자들이 그네를 뛰기 위해 나들이를 나선다. 남자들이 힘자랑을 겨루는 씨름장으로 나오는 길에 서로 오가면서 마주친다. 처녀 총각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을 이때 실행에 옮기고자 애썼다.

단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그네뛰기와 씨름이었다. 이것은 무더위를 땀으로 식히는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놀이이기도 하다. 그네뛰기는 단오 날 여자들의 놀이로서 정월놀이인 널뛰기와 함께 여성놀이의 쌍벽을 이룬다. 그네에 대해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자료에 처음 나타난다. ‘고려사’ 열전의 ‘최충헌전’에 “단오 날에 충헌이 그네를 설치하고 4품 이상의 문무 관원들을 초청하여 3일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헌상의 첫 기록이다.

여자들이 단오 날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네 뛰는 여자의 모습을 반선녀(半仙女)라고도 했다. 이 무렵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날씨 또한 청명하므로 푸른 창공을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여인의 모습은 물찬 제비 같았다.

그네놀이에는 한 사람이 뛰는 외그네 뛰기와 한 그네에 두 사람이 함께 마주 향하여 뛰는 쌍그네, 혹은 맞그네 뛰기가 있다. 그네는 흔히 여자들의 놀이로 알려져 있지만 남자들도 종종 뛴다. 단오

날 그네뛰기야말로 옛날 부녀자들이 일년 내내 억눌렀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단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공동체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펼쳐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서낭을 모시는 행사로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강릉단오제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는 단오에 한 장군(韓將軍)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원무(女圓舞)를 추며 노는 한 장군놀이가 전승된다. 또한 문호장(文戶長)이라는 신령한 인물에게 제를 올리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의 ‘문호장 굿’ 이 전해온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13
Fax : 02)3274-2009
E-mail : lsy1296@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5월호
(통권 제 41 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5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